

일방향 수업 넘어 학생 주도 수업으로 재구성해야

미래교양리포트: ③ 교수법의 혁신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 지난 교양교육 현재를 통해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육성을 추구해야 함은 확인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사례자가 문제 해결력이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취됨에 동의했다. 교양 교육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됨에 따라 우리신문은 이번호에서 교육 방법을 살펴보자 한다. 교수법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특별취재팀=최명규, 안나연, 이후승, 김지원, 안수민 기자)

우리신문이 지난 8월 양 캠퍸스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현재의 교양교육에 불만족했다. 그 이유로 수업 방식과 교수법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설문의 응답자 73.6%가 우리학교 교양 교육의 목표에는 공감했다. 이는 교육법의 개선이 교양교육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교육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인지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신문이 지난 2회에 걸쳐 연재한 미래교양리포트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양 교육의 목표는 문제해결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양교육 학회 흥성기 학회장은 현재의 일방향 수업을 비판하며 '학생 스스로 이것과 저것을 엮어보는 경험'을 강조했다. 흥 학회장은 "교양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끌교양' 같은 말이 팽배한 현재의 대학에선 수동적인 자세보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교양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스트 교수학습혁신지원센터에 이태영 센터장 역시 "잘 정의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선 문제해결력을 위한 창의력이 개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선 교

교수법에 혁신을 적용한 타학교 사례

카이스트

에듀케이션 3.0

사전동영상
학습 이후
오프라인 활동
(토론협동형
과제, 실험)

에듀케이션 4.0

· 플립러닝
· 강의 이후 토론식
팀워크 수업 진행
· 전면 토론식
팀워크 수업

한국외국어대

스마트 러닝

스마트 기기
활용한
언어 교육

AI 러닝

개인 맞춤형
어학 교육
(adaptive learning)

“

같은 교육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방식은 지속적 발전과
재구성 필요해

”

연재 순서

미래교양리포트① 후마 어제와 오늘
미래교양리포트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미래교양리포트③ 교수법의 혁신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수학습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며 "이미 있는 문제를 풀기보단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 예"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이스트는 기존의 교수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듀케이션 3.0'을 제시했다.

이는 플립러닝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 플립러닝을 구체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플립러닝은 학생이 사전에 제공된 온라인 강의를 선행 학습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에듀케이션 3.0은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토론·협동형 과제, 실험을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성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부터 명칭을 '에듀케이션 4.0'으로 변경했다. 카이스트는 2012년 에듀케이션 3.0 출범 당시부터 플립러닝을 적용한 강좌수를 꾸준히 늘려 에듀케이션 4.0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에는 이를 18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이 센터장은 "플립러닝이란 카테고리에 얹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없애는 것이 각오"라고 밝혔다.

신 팀장은 "기존의 일괄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러닝'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러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러닝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대 콘텐츠

하며 준비부터 진행까지 수업의 주체가 되는 플립러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케 하는 교수법이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자와 교수자,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해 획일적인 강의방식을 깨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조성된 창의적 학습 환경은 문제해결력 발전의 배경이 된다.

한국외국어대(외대)는 스마트러닝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적극적인 스마트러닝 개발을 위해 외대는 지난 4월 기존의 지식출판원을 지식출판콘텐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선후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교수법 또한 변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는 색다른 교육과정을 겪은 학생을 사회에 배출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콘텐츠원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 팀장은 "기존의 일괄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러닝'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러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러닝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대 콘텐츠

원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수법과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교수법의 개발은 교수자의 기술 적용과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교수학습 개선에 있어서 교수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선 교수역량 개발을 비롯해 교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교수역량개발을 위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샵을 학기당 최소 4회에서 5회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교수 간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교수학습혁신지원센터 이태영 센터장은 "워크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결과 이제 대부분의 교수가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며 "2031년까지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강좌를 50% 이상으로 전환하자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기장비 구입 등 초기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외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시행한다. 외대 콘텐츠원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학생들에게 매학기마다 아이패드를 대여한다.

또 교내에서 ADE(Apple Distinguished Educator)로 지정된 교원은 별도로 애플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스마트러닝에 관심을 갖게된 교직원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나누기도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교육법은 문제해결력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돋는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가 기술을 활용할 때 더 많은 학습자가 문제해결력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은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발적 학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제까지의 오프라인 강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어 "같은 교육 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육방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문제해결력을 다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대두되는 가치다.

2018-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진로탐색 등 심도있는 저아성찰 계기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 융합설계능력 함양

2. 지원대상

• 2018-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청규학기 재학생

• 꿈과 도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

• 2019년 2학기 출입예정자, 청규학기 조교자, 장학규정 위배자, 2018-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이수학점, 가계고정장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팀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토장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4. 도전분야

•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지구주제

• ⑥부설대학원원장에게 토장금을 수여하는 경우 신청불가

• ⑦도전주제로 토장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 ⑧선별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별하지 않을 수 있음

5. 선별인원

• 50명/팀 내외

• 선별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별하지 않을 수 있음

6. 선별방법

•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별인원의 1.5~2배수 선별

• (2단계) 면접평가(100점)+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별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별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평가방법 및 반영비율

7.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400만원

• 장학금 신청시 300만원 선지급, 증정·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이후 지급

• 장학금으로 선별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300만원)은 반납해야 함

• 장학금으로 선별된 후 의무사항을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음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8.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9. 17. (월) 09:00 ~ 10. 12. (금) 17:30 [4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1) 온라인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8-2학기 경희꿈도전장학

2.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8. 10. 10. (수) 09:00 ~ 10. 12. (금) 17:30

• 제출처 : 학생지원센터(장학)·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원 7번 창구

3. 제출서류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처물) 1부

•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활동계획서는 등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도 제출해야 함

• 경희꿈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1부

9. 선별일정

내용

일정

비고

10. 장학생 의무사항

내용

일정

비고

11. 유의사항

내용

일정

비고

10월 둘째 주(10.08~10.12)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미래인재센터와 함께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리쿠르팅

행사명	일
-----	---